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5

▶ 76회 예고
아쇼까왕은 깔링가국 정벌을 위해 마우리아국의 전군을 동원한다. 목갈리뿟따 띳사 장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을 만든다. 군사들의 무운장구를 빌기 위해서다. 마침내 자신이 총사령관을 맡아 진격한다.



아쇼까, 깔링가국 정벌을 결심

아쇼까왕이 왕권을 잡고 난 뒤부터 수상이 된 라다굽따는 중병이 들었다. 아쇼까왕이 몇 번이나 궁중의원을 보내 치료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누운 채 목숨을 연명할 뿐이었다. 칼라따까와 함께 아쇼까가 이복형 수시마를 물리치고 왕권을 잡는 데 크게 공을 세운 대신이었다. 강경한 칼라따까에 비해 라다굽따는 온건한 대신이었다. 아쇼까왕이 잔혹하게 궁녀와 신하들을 살해할 때 라다굽따는 나름대로 다르마 대비와 함께 왕의 포악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하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라다굽따도 세월은 이기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온 노환이었다. 눈과 귀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몸은 젓가락처럼 말라갔다. 아쇼까왕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쓰러져 들것에 실려나간 적도 있었다. 급기야 아쇼까왕이 내성 안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문병을 가기에 이르렀다. 라다굽따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누운 채 아쇼까왕을 맞이했다.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오?"

"소신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 걱정은 마시고 몸조리 잘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저는 틀렸습니다. 제 운명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나에게 할 말은 없소?"

"대비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륜성왕이 되시어 추앙받기를 바랍니다."

라다굽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이맛살을 찌푸리며 몹시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였다. 아쇼까왕이 그의 고통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전륜성왕은 어떻게 될 수 있소?"

"백성을 칼보다는 마음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소."

아쇼까왕은 고통스러워하는 라다굽따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 미안하여 서둘러 그의 방을 나왔다. 수행한 친위대장에게 말했다.

"라다굽따 수상의 복귀는 어렵겠소. 새 수상을 찾아야겠소."

"대신들 중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내 눈에 든 대신이 없으니 라다굽따가 지금까지 수상을 해온 것이오."

친위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아쇼까왕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진즉부터 대관식 다음해에 빠딸리뿌뜨라 성 밖으로 추방당한 마하데바라를 수상 후보선상에 올려놓고 있었다. 마하데바라는 눈엣가시 같은 깔링가국을 정벌하자고 주장한 대신이었다. 깔링가국이 해상무역로를 장악한 탓에 자국의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깔링가국 세리들이 마우리아국 상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물리곤 했던 바 마하데바라는 대신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분노했다.

그때 아쇼까왕은 대관식을 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깔링가국의 전력을 잘 몰랐으므로 마하데바라 대신의 조언을 받아들여 변방의 장군을 대장군으로 삼아 보병 10만 명을 보냈으나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 책임을 물어 마하데바라를 빠딸리뿌뜨라 성 밖으로 추방했고, 원정 대장군은 외성 사형장에서 참수했다. 아쇼까왕은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당장은 내치를 다질 때였으므로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대관식을 치른 지 7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전력은 몇 배나 증강이 된 상황이었다. 실제로 정벌에 실패한 뒤부터 전력을 증강하여 즉위 4년째에는 보병이 60만 명, 기병이 10만 명, 코끼리부대 9천 명이 되었고, 이후에는 강훈련을 꾸준히 지속하여 지금은 가용병력 전체가 정예화 되어 있었다.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출동하여 어느 나라든 정벌할 수 있는 전투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아쇼까는 친위대장에게 마하데바라를 수소문하도록 지시했다.

"대장, 마하데바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오."

"마하데바라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소?"

"저나 마하데바라 전 대신님이나 모두 칼라따까 수상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하데바라는 지금 어디에 있소?"

"외성 밖 짠달라 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흐민이 어째서 달리뜨들의 천민촌에 살고 있다는 말이오?"

"그곳에 사는 부자 도비왈라가 전 대신님에게 크게 도움을 주어왔고, 그분의 저택에는 큰 법당이 있는데 니그로다 사문님이 짠달라 천민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의 말을 들으니 마하데바라에게 더욱 미안한 생각이 드오. 빠딸리뿌뜨라 성 밖에서 천민 달리뜨들과 함께 마하데바라가 살고 있다니 말이오."

"니그로다 사문에게 귀의하면서 그분의 삶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하데바라는 원래 애국심이 강한 신하였소. 깔링가국에서 우리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깔링가국을 정벌해버리자고 주장했던 대신이었소."

친위대장은 아쇼까왕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칼라따까가 발탁한 인물들은 충성심이 강한 것이 특징이었다. 칼라따까 수상이 수시마를 제거하는 데 앞장선 이유도 사실은 마우리아국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이었지,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모사를 꾸민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대장, 마하데바라를 즉시 데리고 오시오."

"예, 알겠습니다."

친위대장은 아쇼까왕 집무실을 나왔다. 마하데바라가 살고 있는 외성 밖으로 말을 타고 달렸다. 친위대장이 마하데바라를 안 지는 십수 년이 넘었다. 칼라따까 저택 집사 시절에 마하데바라를 처음 보았던 것이다. 신분은 칼라따까와 마하데바라는 브라흐민이었고, 친위대장은 끄샤뜨리야였다. 칼라따까는 자신을 닮은 것 같은 마하데바라를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는데, 라다굽따가 등장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쇼까왕이 온순하고 태도가 원만한 라다굽따를 수상으로 지명했던 것이다. 마하베바라의 재등장은 5년 만인 셈이었다. 친위대장은 곧장 외성 밖으로 나가 짠달라 천민촌으로 달렸다. 마하데바라의 저택은 천민촌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강가강이 보이는 언덕에 이층벽돌집 두 채가 바로 마하데바라의 저택이었다. 한 채는 마하데바라 살림집이었고, 또 한 채는 니그로다 사문이 법회를 주관하는 법당이었다. 도비왈라가 자신의 사재를 들여 지어준 건물이었데, 도비왈라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마하데바라가 전 친위대장을 소개해주어 왕실 및 친위대 지휘관들의 빨랫감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친위대장이 짠달라 천민촌에 도착했을 때 도비왈라는 마을 옆으로 흐르는 강가강 지류에서 빨래하는 수십 명의 달리뜨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친위대장이 말을 타고 다가오자 도비왈라는 급히 쫓아와서 굽신거렸다.



"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하데바라 대신님을 모시러 왔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앞장서게."

"대신님께서는 잘 계신가?"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대신님이신데 제가 어찌 소홀히 모시겠습니까?"

"자네는 운이 좋아. 전 친위대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왕궁에 한 사람도 없다네."

"니그로다 사문님이나 대신님이 돌보아주신 덕분이죠. 두 분 모두 저희 달리뜨들이 의지하는 분들이죠."

마하데바라가 사는 이층벽돌집 저택은 왕궁 건물처럼 깨끗했다. 정원도 잘 손질되어 단정했다. 장미꽃과 부겐빌리아의 붉고 하얀 꽃들이 저택 입구에서부터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대신님 저택은 누가 관리를 해주는가?"

"제가 날마다 대신님 댁에 청소부를 보내죠. 정원은 우기가 끝나면 바로 사람을 보내 정원수들을 다듬고요."

"의리가 있으니 전 친위대장 사람인데도 왕실의 일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네."

"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마하데바라 대신님과 니그로다 사문님 덕분이죠."

"니그로다 사문님은 대왕님 조카이니까 그렇겠네."

도비왈라가 마하데바라의 저택 정문에서 청소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대신님께 알리거라! 왕궁에서 친위대장님께서 오셨다고!"

"예, 도비왈라님."

친위대장은 정문 밖에서 마하데바라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물론 도비왈라도 마찬가지였다. 이윽고 수염이 허연 마하데바라가 나타났다. 수염만 허열 뿐 마하데바라의 피부는 젊은 청년처럼 팽팽했다. 피부를 보아서는 아주 건강해 보였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대신님, 대왕님께서 모시고 오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얼마 만인가?"

"칼라따까 수상님 댁 집사로 있을 때 대신님을 뵙곤 했습니다."

"십수 년만이군."

"대왕님께서 새 수상을 물색하고 계십니다."

"라다굽따 수상이 있지 않는가?"

"대왕님 집무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다굽따 수상이라고 해서 세월을 피할 수는 없겠지."

"대신님은 하나도 늙지 않으셨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네. 라다굽따도 자네도 나도 마찬가지일세."

마하데바라는 하인에게 말을 꺼내오게 했다. 아쇼까왕의 명을 거부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마하데바라는 마치 때를 기다려 왔다는 듯 말에 올라탔다.

"대왕님께서 부르시는데 빨리 가서 알현해야겠네."

"대신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친위대장이 길잡이가 되고 마하데바라가 뒤따랐다. 두 마리의 말이 달리면서 모래먼지를 일으켰다. 그런데도 도비왈라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에게 지시한 지 한 나절만에 마하데바라를 데리고 오자, 몹시 만족했다. 아쇼까왕이 마하데바라의 양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마하데바라 대신이여, 5년 만에 그대를 만나고 있소."

"대왕님이시여, 소신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그대는 나와 할 일이 많소."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대를 보니 칼라따까 수상이 생각나오."

"친위대장이 소신을 찾아왔을 때 소신은 대왕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나는 원이 있소. 할아버지 대왕님, 아버지 대왕님께서 이루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소."

"그것은 깔링가국 정벌이 아닙니까?"

"그렇소. 나는 그대와 함께 선왕께서 이루지 못한 깔링가국을 정벌할 것이오."

"소신이 목숨을 바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 잘 훈련된 보병 60만 명, 기병 10만 명, 코끼리부대 9천 명이 대기하고 있소.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설 것이오."

그날 오후.

아쇼까왕은 두 가지의 명을 내렸다. 하나는 마하데바라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전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아쇼까왕은 전투첩보가 깔링가국에 흘러들어가기 전에 바람처럼 빠르게 속전을 펴서 정벌할 생각이었다.〈계속〉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